

지역 매아리



부안서, 부처님 오신 날 사찰대상 안전사고 예방 특별방범활동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관내 22개 사찰 및 암자의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어 오는 22일까지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화재 및 불탄 함 시종돈 절취 등 사찰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사찰 진입로 및 주변 취약개소를 살펴보고 CCTV, 방범창 이상 유무 확인 등 범죄예방 상태 점검과 스님들에게 화기사용 안전수칙 등을 전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찰, 소방관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시 즉시 대응토록 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사찰 주변 112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교통체증에 대비하여 주요 교통 혼잡 예상지점에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읍, 1읍면 1명소 전불 등산로 정비

고창읍(읍장 박병도)은 1읍면 1명소로 지정된 전불 등산로를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불 등산로는 고창읍이 1읍면 1명소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 정비를 통해 꽃무룻, 수선화 등 7종의 꽃을 심어 야생화 숲을 조성하고 모정 2동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1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은 읍면별로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소를 지정해 아름답게 가꾸고, 나아가 고창군의 명소로 가꾸어 명품 고창건설의 기초가 될 수 있게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주관

관광두레사업 추진 '박차'

정읍시, 내달 22일까지 사업 참여 주민 사업체 접수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 주관하는 관광두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주관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관광'이라는 슬로건으로 2013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현재 47개 시·군에서 157개의 주민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 관광두레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주민사업체

를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광사업 관련 창업을 구상 중인 정읍 소재 주민사업체와 ▲현재 운영 중인 관광사업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이다. 단 창업의 경우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해야 하고, 경영개선의 경우는 구성원 중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 주민사업체로 선정되면 기본 3년 간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역량 강화 멘토링, 견학, 파일럿 사업과 홍보 마케팅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1차 연도에는 주

민사업체 발굴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2차 연도에는 성공 창업과 경영개선이 이루어진다. 3차 연도에는 주민사업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관광두레 생태계를 구축하며, 자립경영의 모범사례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2년간 추가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두레 사업을 잘 활용하면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관광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체험과 숙박, 식음, 기념품, 레저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지역 특화브랜드를 만들고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첫발'

귀농귀촌 인구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해 '사이버 고창 군민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사이버 고창 군민제도'란 고창군의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지역 활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군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활성화시켜 문화·관광·경제 등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고창군의 인구유입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창군 기획예산실에서는 먼저 '사이버 고창 군민제도'의 제도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에서 고창군 사이버 군민에 대한 혜택마련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사이버 고창군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사이버 고창군민을 본격적

으로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사이버 고창 군민이 되면, 가맹점 할인, 고창군 관내 문화·관광시설 할인, 홈페이지 활동을 통한 마일리지 제공,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 할 예정이며, 향후 구축되는 사이버 고창군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창군 농특산품의 구입시 각종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사이버 군민제도를 통해 고창을 알리고, 방문객과 관광객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창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제공 등 사이버 군민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 고창군민 제도의 궁극의 목표는 결국 고창의 활력 증진"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로 문화 복지 혜택 누리세요"

정읍시, 이달 31일까지 추가 모집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이하 여성 생생카드)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이달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 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1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이달 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1,246명에게 카드를 발급(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며 기간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5세 이상~만 70세 미만(단, 결혼한 만20세 이상~만24세 지원 가능)이며, 가구 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어업)이어야 한다.

1인 당 지원 금액은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시는 특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지난해까지는 관광 여행사와 스포츠용품,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안경점 등 25개 업종이었으나 올해 전북도 내 하나로마트를 비롯 음식점,커피전문점, 주유소 등 11개 업종이 늘어 총 3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도내에서만 가능하나 기타 업종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현황

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신청 홍보

1인당 연간 7만원 지원

정읍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과 관련, 시민들의 이용과 신청을 당부했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구입 등의 문화상품과 가차, 철도, 항공권, 여행상품 구입, 테마파크 이용은 물론 농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관람까지 가능한 이용권이다.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례해 시는 올해 5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청(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세 이상(2012. 12. 31. 이전 출생자)로, 대상 인원은 모두 1만666명(기초 9,282 차상위 1,414)이다.

시 관계자는 "올 예산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78%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되는 시민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카드를 발급해 준다. 1인 당 연간 7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특히 발급 기간 내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 대상자 전원에게 발급된다. 지난해까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지는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들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마감은 11월 30일이고, 발급된 카드는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통합문화 이용권은 온·오프라인 모두 활용 가능하고 오프라인 사용은 전국 통합 문화이용권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현장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문화누리카드·PAYCO가맹점에서 간편 결제로 이용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5월 29일까지 2018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결정·이의신청 접수

정읍시가 지난 달 30일 자료 2018년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공시 주택수는 모두 2만6,037호로, 공시(가격)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다. 결정, 공시는 개별 주택 소재지와 지번, 면적,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주택가격은 평균 3.74% 상승했다. 최고 가격은 연지동 37-1의 9억 1,900만원, 최저 가격은 덕천면 우덕리 340-1의 70만8,00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 상 이해 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열람장소는 시청 민

원실(세무민원창구)과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이다. 비치돼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소방서, 무전기 활용 긴급구조제단 도상훈련 실시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부안읍에 위치한 건강 나라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부안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긴급구조제단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진압 작전계획과 지원사항에 관한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이번

훈련은 무전기를 활용한 현장 대응능력 구성과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 의료지원 등 현장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고, 각 부 팀원들은 재난현장에서 대응과 대책 방안을 발표하며 열띤 토론을 가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푸드필드와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혜택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열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뽕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